

# 광주시민 어울림 한마당... '제59회 시민의 날' 성료

시청 일원서 시민축제의 장 펼쳐져 '열린청사' 조성...시민들 새 휴식처 워터슬라이드·플리마켓 운영 '호응' 시민소통 정책평가박람회 등 눈길

광주가 59번째 생일을 맞은 가운데 시민들은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 일대에서 여유로운 '시민의날'을 만끽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일원에서 59번째 광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의 '광주만세'를 주제로 '제59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시민의날은 시민이 모여 즐기고 체험하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 꾸러졌다. 이날 최고 인기는 '웰컴 투 워터월드'였다. 시청 앞 어린이 놀이시설인 워터슬라이드를 설치, '워터월드'로 깜짝 변신했다.

시청 잔디광장은 소풍 온 듯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광주시가 준비한 텐트와 의자 등 휴식공간 외에도 직접 먹거리와 텐트 등을 챙겨온 시민들은 잔디광장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며 추억을 쌓았다.

광주시는 최근 누구나 시청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담장 등을 없애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위해 광장(廣場)의 기

능을 살린 '열린청사'를 만들었다.

외부 공간은 기존 플랜트박스 11개소를 철거해 개방하고 격자형 보도와 지장물을 없애 보행 편의를 높였다. 또 소나무 숲의 노후된 휴게시설을 정비해 쉼터를 가꿨으며 내부 또한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은 과감히 비우고 시민 휴식,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청사 1층에 시민홀에서 열린 플리마켓과 정책평가박람회를 비롯해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 푸드트럭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정책평가박람회는 광주 5개 분야 주요정책 30개를 두고 시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시민소통프로그램으로, 이날 시민들의 큰 참여를 이끌어냈다.

제12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열렸다. 참가자 10팀(명)은 맛갈스럽고 구수한 전라도사투리로 재담가의 면모를 뽐냈다.

이밖에도 △제17회 세계인의 날 체험부스 운영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커피트릭) △광주김치홍보단 운영(김장시식, 경품) △광주인권헌장 선포(롤렉퀴즈, 경품) △안전예방캠페인 시민실천단 모집 △광주온 시민정책참여단 모집 등 홍보·캠페인 부스도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민 모두의 생일을 축하한다. 광주시민이 돼주셔서 참으

로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편한 마음으로 시청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린청사를 조성했다. 시청은 시민들의 것이고, 행정의 존재이유는 시민 행복이다. 광주시민인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달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세계인의날 기념행사가도 열렸다. 세계인의날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5월 20일)로 제정됐다. 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대표,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소통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광주시민의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의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한 날이다. 광주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11월1일이던 시민의날을 2010년부터 5월21일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인 25일 행사를 열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제59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지난 25일 광주시청 1층에서 열린 정책평가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강 시장, 대통령실 찾아 광주 핵심현안 건의

AI 2단계 예타 면제 요청 5·18정신 헌법수복 개헌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운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을 차례로 만났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실증벨리 조성 사업(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신속 확충을 건의하고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 평동 군호현장(포사격장) 폐쇄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정부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께서 평소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듯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이라는 지금의 국가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구조를 깨고 지방의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 핵심 공약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민생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복지기동대', 전국 우수 복지시책 '주목'

대구 김용판 의원, 영암 현장방문 전북 등 타 시·도 벤치마킹 줄이어 2019년 전국 첫 출범 4700명 활동

전남도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대표 복지시책을 넘어 전국적인 우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구병)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향후 정책을 마련하고자 복지기동대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를 만나 복지기동대 출범 배경, 지난 6년의 성과 등을 청취하고, 영암군으로 이동해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치는 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전남도 국정감사 당시 "복지기동대 사업은 벤치마킹하고 싶은 정도로 지방화 시대 가장 모범적인 시책"이라고 관심을 보인 후 3년 만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 복지기동대가 보여준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 모델을 대구에 도입해 더 많은 주민이 복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 4월 출범해 시군 및 읍면동 전체 319개 대가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전남 전체 가구의 18%인 16만3500가구를 지원했고, 2000여 명으로 출발한 복지기동대원도 현재는 4700여 명에 이른다.

복지기동대 사업은 2021년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우수 사례(행안부),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을 받으며, 전남 대표 복지시

책을 넘어 전국적인 우수 정책으로 소개됐다.

또한 복지기동대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추구와 민관협력 체감 복지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2023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더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원들 덕분에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전남도 대표 시책인 복지기동대 사업이 전국 행복시대를 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남을 방문해 시책 추진 사례를 살핀 후 복지기동대를 출범해 가동하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동환 기자

## 전남도,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

전남도가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보조금 31억원과 자부담 13억원 등 총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여성화로 농촌의 주요 운반수단인 경운기 조작에 어려움이 많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가격은 대당 550만원으로 70%를 보조금, 30%는 자부담이다. 보급기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기계 성능과 안전성 검증 등을 마친 기종이다.

또 도내 생산제품을 위주로 보급·지원해 전남도의 전략산업인 e-모빌리티산업의 성장 발전도 함께 견인할 방침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기운반차가 고령·여성농업인의 운반·이동의 불편을 줄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이수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전남도, 중국 충칭서 '남도 맛과 멋' 자랑

대표단, 우호도시협력대회 참가 남도 문화예술·음식 등 큰 인기

전남도가 중국 우호도시인 충칭시(重慶市) 정부 초청으로 지난 24일까지 4일간 열린 '충칭 국제우호도시협력대회'에 참가해 전남의 맛과 멋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충칭시 국제우호도시협력대회는 충칭시의 해외 우호도시 40여 개국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회복, 확장하는 행사다.

행사 기간 전남도대표단은 도립국악단 축하공연, 남도음식 만들기 체험행사와 전남 관공홍보 사진전, 전남산 농수산물 품 전시·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행사에 참

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남도문화 예술과 음식에 대한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특히 '충칭 국제우호도시음식문화의거리 프로젝트' 개장식에서 해외 우호도시 대표자로 나선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충칭 국제우호도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문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체험하는 현대인의 수요에 잘 부합한다"며 "키친 오브 코리아-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 "2024~2026년 전남도가 추진하는 '세계관광문화대전' 프로젝트에 많은 해외 대표단이 전남을 방문해 전남의 맛과 멋을 즐기길 희망한다"고 제안했

다.

올해로 교류 16년째를 맞는 전남도와 충칭시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양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충칭시 외사관공실에서 양 지역 국제부서(전남도 국제협력관·충칭시 외사관공실) 대표단이 교류간담회를 가졌다. 향후 상호 대표단 초청 방문 등 두 지역의 우호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 기간 특별히 전남도립국악단이 함께해 축하공연, 충칭민족악단과의 합동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이후 양 지역 간 예술 분야 민간교류를 재개하기도 했다.

최동환 기자